

RE100 전환

LG에너지솔루션 국내업체 중 '1위'

유럽과 북미 보다는 저조

국내기업의 RE100 전환 실적이 유럽과 북미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조한 가운데 LG에너지솔루션의 실적이 국내 업체에서는 가장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지속가능성 평가 기관인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CDP) 위원회는 최근 연간 전력 소비량이 100GWh 이상 또는 미국 경제지 포춘(Fortune)이 선정한 글로벌 기업 등을 대상으로 조사한 'RE100 2021' 연례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에 나타난 RE100 가입 글로벌 34개 기업의 실적(2020년 기준)을 보면 LG에너지솔루션의 전환 실적은 33%로 나타났다.

아모레퍼시픽(090430)은 5%, 한국수자원공사와 SK(株)·SK하이닉스·SK텔레콤 등은 0%로 집계됐다.

미국 애플, 뱅크오브아메리카, 영국 카나리아프그룹, 스위스 크레디트스위스 등은 RE100 100%를 달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독일 BMW 81%, 미국 인텔 81%, 미국 GM 24% 등이었다.

유럽과 북미를 중심으로 세계 각국이 친환경 정책을 강화하고 고객과 투자자들의 탄소중립 요구도 커지면서 글로벌 기업들의 RE100 참여 필요성은 나날이 커지고 있다.

국내에서는 SK하이닉스와 SK텔레콤 등 SK 8개사가 2020년 11월 최초로 RE100에 가입했고 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해 4월 국내 배터리업체 중 처음으로 RE100 캠페인에 가입했다.

현대차그룹, 도로교통공단, 롯데칠성음료 등도 지난해 가입하는 등 국내 기업들의 RE100 참여가 확대되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의 경우 폴란드 공장은 2019년부터 미국 공장은 2020년 7월부터 재생에너지 100%를 사용해 운영 중이다.

한편 RE100(Renewable Electricity 100)은 오는 2050년까지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 100%를 재생 에너지로 전환하는 캠페인으로, 다국적 비영리 기구 '더 클라이밋 그룹'이 주관한다. /안조영 기자 kienews@naver.com



광주광역시, 수소 공급가격 26% 가량 인하

저점형 수소생산기지 구축 사업 추진

2045년 에너지자립도시를 표방한 광주광역시가 적극적인 사업 추진에 나서고 있다.

광주광역시는 현재 한국가스공사와 함께 2022년 완공을 목표로 저점형 수소생산기지 구축 사업을 펼치고 있다.

근거리 공급을 통한 운송비용 절감으로 수소 공급가격을 26% 가량 인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력과 온수를 공급하기 위해 100% 민자유치로 추진한 12.3MW 규모의 빛고를 예코에너지발전소도 올해 하반기 완공을 앞두고 있다.

여기에 제2순환도로 방음터널 및 월드컵경기장 주차장, 복지시설 등 공공부지를 대상으로 태양광 발전도 확대하고 있다.

2%3개소의 주택 및 상업시설을 대상으로 총 15억원을 투입해 태양광, 태양열, 연료전지 등 다양한 그린에너지 보급도 계획하고 있다.

시민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에너지 문제 해결을 위한 에너지전환

실천 활동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7월 '첨단전환마을 네트워크 거점센터'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5개소의 거점센터를 조성·운영하고 있다.

올해 5개소의 신규 거점센터가 더 예정돼 마을단위 에너지 전환 활동의 전초기지로 활용할 방침이다.

에너지 전환마을 및 시민협동조합과 함께 연말까지 광주시에 총 2MW 규모의 시민햇빛발전소 설치도 추진한다.

'에너지파크' 운영을 통해 시민들이 2045 에너지자립도시' 실현을 위해 필요한 여러 가지 에너지 기술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다양한 시민참여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주관 주민주도형 지역균형 뉴딜 우수사업 공모에 선정된 '달빛동맹 햇빛마을' 플랫폼 구축 사업을 에너지전환마을과 시민햇빛발전소 운영을 지원하는 수요 맞춤형 플랫폼을 공동으로 개발·활용한다. /안조영 기자 kienews@naver.com



국도 6호선 강원 횡성읍 읍상리 성토부에 설치된 태양광 시설. /국토교통부 제공

고속도로 이어 졸음쉼터와 성토부 비탈면 등 국도변 유휴부지에도 신재생 에너지단지 조성

국토교통부가 고속도로에 이어 국도 졸음쉼터와 나들목 주변 유휴부지, 성토부 비탈면 등 국도변 유휴부지에 신재생 에너지단지를 조성한다고 11일 밝혔다.

민간 공모로 태양광 발전시설을 조성하고 향후 20년간 관리·운영하는 방식이다.

국토부는 2만평이 가장에서 1년간 사용 가능한 25MW 규모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서울·원주·대전·익산·부산 등 5개 지방국도관리청에 각각 5MW 규모로 설치할 예정이다.

지방국도관리청은 국도 주변 사업 후보지를 발굴 제시할 계획이며 사업 신청자는 후보지 외 대체

공간을 제시할 수 있다.

과거 개별 사업자가 국도 인근 비탈면과 나들목 등 유휴부지에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운영했지만 비탈면 안전관리와 태양광 패널 시설 설치와 관련한 민원 등으로 활성화되지 못했다.

또 국도변 태양광 시설 설치에 대한 통일된 기준이 없어 유지관리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민간 사업자는 제안서 접수·평가를 거쳐 오는 5월쯤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되면 각 국도관리청과 협약을 체결하게 된다.

사업의 세부 내용은 오는 28일부터 지방국도관리청 홈페이지에 게재할 계획이다.

/이재철 기자 kienews@naver.com

自然이 사랑하는 에너지

